

매경춘추

장순흥 한동대 총장



지난해 기준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지만, 20~34세 청년의 수도권 인구 비율은 53%에 달한다. 비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88%를 차지하지만 청년 인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지방은 인구 감소로 쇠퇴하고, 대도시에는 인구가 편중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의 높은 생활비와 바쁜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미혼, 미혼이 증가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 공동화·쇠퇴를 맞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우리는 인구 재배치와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먼저, 인

구 재배치를 위해 지방에 매력적인 차세대 산업과 혁신적인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지방은 단순한 귀농, 귀촌의 유인책을 넘어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길러야 한다.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팜 산업뿐 아니라 차세대 의식주 산업, 고급 먹거리 산업, 바이오 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문화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외국인과 자유롭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글로벌 문화, 지식·감성 기반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 문화, 젊은이들의 실패를 용인하는 포용과 자유의 문화, 공유와 협력의 문

화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차세대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공유·협력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에는 성장보다 성숙, 사치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물건, 물건과 물건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는 물리적·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지방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면서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반의 창업에도 전할 수도 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고향 항저우의 한 아파트

에서 창업했다. 항저우는 인구나 자본 규모로는 상하이와 견줄 수 없지만, 알리바바는 전 세계적 IT기업을 배출하는 영예를 안았고 다시금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좁은 한국은 국토를 나누고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는 구습을 타파하고 협력해야 한다. 젊은이들 또한 거대한 산업과 많은 일자리, 화려한 문화가 빛나는 곳을 찾아 떠나는 엑소더스의 대열에 서기보다는 불모지를 개척하는 프런티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당찬 인재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기성세대의 격려와 지지, 법적·제도적·재정적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방을 일으키자